

포르투갈 웨일즈 꺾고 12년 만에 결승행

호날두·나니 연속 골 앞세워 2-0 승리 첫 우승 도전

포르투갈이 웨일스의 돌풍을 잠재우며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에서 결승에 선착했다.

포르투갈은 7일(한국시간) 프랑스 리옹의 스타드 드 리옹에서 벌어진 웨일즈와의 유로2016 준결승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나니(페네르바체)의 연속 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자국에서 열렸던 유로2004 이후 12년 만에 결승에 진출,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처음으로 유로 본선에 오른 웨일스는 4강 진출에 만족했다.

공격의 활로를 여는 아론 램지(아스날)의 경고누적으로 인한 결장이 뼈아팠다.

포르투갈의 간판 공격수 호날두는 0-0으로 팽팽한 후반 5분에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번 대회 3번째 골이다. 도우도 추가해 이번 대회에서 3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날 골은 유로 본선에서 넣은 통산 9번째로 호날두는 프랑스 출신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과 함께 유로 본선 최다 득점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호날두는 최초로 유로 본선에서 4

개 대회 연속 골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는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호날두와 가레스 베일(웨일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절친한 둘은 빠른 스피드와 위력적인 슈팅 등 닮은 구석이 많다.

호날두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관정승을 거뒀다.

포르투갈은 0-0으로 팽팽한 후반 5분 코너킥 세트피스를 발판으로 선제골을 만들었다.

라파엘 케레이토(로리앙)가 왼쪽 측면에서 울린 크로스를 호날두가 높은 점프에 이은 정확한 헤딩슛으로 웨일스의 골망을 흔들었다.

3분 만에 쐐기를 박았다. 호날두가 때린 강한 팽발 슈팅을 나니가 방한만 살짝 바꿔 추가골로 연결했다.

웨일스는 샘 보크스(번리), 조나단 윌리엄스(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먼 처치(밀턴) 등 공격 지원을 대거 투입해 반전을 노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포르투갈은 독일-프랑스의 준결승전 승자와 오는 11일 우승을 두고 다툰다.

/김민근기자



포르투갈의 간판 공격수 호날두는 0-0으로 팽팽한 후반 5분에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번 대회 3번째 골이다. 도우도 추가해 이번 대회에서 3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우석대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 교육연수 성료

세계 각국에 파견돼 태권도와 한국문화를 전파할 우석대학교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의 2016 하계 교육연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의 연수는 태권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를 비롯해 해외봉사정신 및 국제협력 워크숍,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레크리에이션 강습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연수는 예년과 달리 태권도와 해외봉사 관련 전문 강사진이 대거 투입돼 교육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해외현장 중심의 태권도 시범 시연회 등을 펼쳐 연수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민근기자



전라북도 축구 U-15 선수단 중국 친선경기 2승 1패

전라북도축구협회와 중국 강소성의 축구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된 친선경기에서 U-15 축구팀이 강소성 프로상하 U-15, U-16 팀을 상대로 2승 1패의 좋은 성적을 선보이고 있다.

강소성 U-15와의 첫 경기에서 4대2로 패했지만 강소성 U-16팀과 강소성 U-16팀에게는 3대1과 4대2로 각각 승리하며 전북축구의 힘을 보이고 있다.

선수단 총감독으로 참가한 이리동중학교 한상진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전라북도축구협회와 현지에서 생활과 경기 환경까지 지원해주시는 강소성 축구센터 주님 부주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한국 리우올림픽 톱10 예측

미국 스포츠 데이터 분석업체 그레이스노트 각국 성적 예상 한국 금메달 10 · 은메달 5 · 동메달 10개로 9위 랭크

한국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톱10을 사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미국 스포츠 데이터 분석업체인 그레이스노트가 올림픽 개막을 30일 앞둔 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예상 성적에 따르면 한국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로 9위에 랭크됐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순위 5위에 오른 런던올림픽보다는 조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레이스노트는 한국 양궁이 역대 최초로 4종목 싸움이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녀 개인전 우승자로는 김우진(24·청주시청)과 기보배(28·광주시청)를 예상했고 최미선(20·광주여대)이 여자 개인전 은메달을 딸 것으로 점쳤다.

배드민턴 남자복식 이용대(28·삼성전기)-유연성(30·수원시청) 조와 남자 유도 68kg급 안바울(22·남양주시청), 73kg급 안창림(22·수원시청)도 금메달 후보로 꼽혔다.

사격 간판 스타인 진종오(37·KT)의 2관왕도 예상됐다.

그레이스노트는 남자 10m 공기권총과 50m 권총 예상 금메달리스트로 진종오의 이름을 적었다.

진종오가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한국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개인 종목 3연패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된다.

태권도에서는 이대훈(24·한국가스공사)이 종주국의 체면을 세울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해 세계태권도연맹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58kg급 우승자인 김태훈(22·동아대)은 은메달 리스트로 분류됐다.

여자 골프의 박인비(28·KB금융그룹)와 배드민턴 고성현(29·김천시청)-김하나(27·삼성전기) 조, 유도 남자 90kg급 곽동한(24하이원) 역시 은메달 리스트에 포함됐다.

종합 1위는 미국이 될 것으로 봤다. 예상 성적은 금메달 41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28개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2016 리우하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서 양궁 기보배가 과녁의 점수를 확인하고 있다.

중국이 금메달 31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24개로 2위에 올랐고 도핑 파문에 휩싸인 러시아가 금메달 20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20개로 3위에 예측됐다.

일본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로 한국보다 두 계단 높은 7위로 예상됐다.

그레이스노트는 112년 만의 올림픽으로 돌아온 골프의 개인전 우승자로 조던 스

피스(28·미국)와 리디아 고(19·뉴질랜드)에게 표를 던졌다.

육상 남자 100m에서는 저스틴 게이틀린(34·미국)이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의 아성을 무너뜨릴 것으로 내다봤고 미국의 수영 황제인 마이클 펠프스(31)가 금메달 4개를 쓸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곁들였다.

/김민근기자

메시 첼시로 이적설 또 불거져

바르사의 원클럽맨 리오넬 메시(29)의 프리미어리그 첼시행이 또다시 불거졌다. 올여름 대표팀 은퇴와 탈세혐의 등으로 시련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 그가 FC 바르셀로나를 떠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미국 ESPN은 7일(한국시간) 영국 대중지 더 선을 인용해 '첼시, 메시의 바르사 엑시트(exit, 탈출) 협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그의 이적 움직임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5차례 축구 최고의 상인 발롱도르를 차지한 메시의 부친이자 대변인인 호르헤 메시가 첼시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이적 협상을 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메시 부자는 탈세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첼시는 이번 탈세건의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해왔고 지금이 메시지를 데려올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